

■ 르포 / 황사와 초미세먼지 제주섬 뒤덮은 날...

# “퀴퀴한 냄새에 눈 따갑고 숨쉬기 곤란”

제주전역 중일 뿌연 하늘  
한라산도 흙먼지 속으로  
놀이터엔 아이들 안보여  
유치원 실내서 체육활동



29일 제주시 거동동 삼거리에서 바라 본 제주시가지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역이 짙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누레졌다.

29일 제주지역은 황사가 너무 심해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다. 오전 8시30분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펴보니 한라산은 자취를 감췄고, 멀리 있는 건물들은 눈에 간신히 들어왔다. 도로 위 차량들은 유리창이 전부 닳혀 있었다. 차량들은 멀리 있는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선지 거북이 운행을 했다. 도로에선 이중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눈에 띄었다.

평소에 기관지가 좋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는 A씨는 “오늘 황사가 유독 심해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했다. 퀴퀴한 먼지냄새에 눈도 따갑고 숨쉬기가 무섭다”며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연립주택, 평소 이불이나 옷가지 등을 베란다에 걸쳐놓고 햇볕에 말

리는 장면이 자주 보였지만, 이날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창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인근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안보일뿐더러 어른들이 두런 두런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던 정자에도 이날은 인기척이 끊겼다.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B씨는 “평소 맑은 날이면 이불이나 옷 등을 햇볕에 널어놔 말리겠지만, 일어나 밖을 보니 엄두를 못내겠다”며 “오늘 외부행사가 있었지만 취소하고 집에만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은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했지만 선생님들은 황사로 인해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C씨는 “교육청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실외활동 1시간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했고, 아이들 호흡기 건강이 걱정돼 환기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끔씩 황사 때에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미세

먼지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의보나 경보 등 미세먼지가 짙어지면 도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 등에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방송사에 요청해 미세먼지 주의보와 행동강령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만기자 kms6510@ihalla.com

## 수백억대 ‘외제차 사기’ 주범 검거

120여명 상대 250억대 사기  
경찰 “또다른 주범도 추적  
대포차 판매 등 수사 확대”

수백억원대 피해가 나오고 있는 ‘제주 외제차 사기 사건’의 주범 중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A(24)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120여명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외제차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차가 아닌 중고 외제차를 수출하면 관세 등 감경 혜택을 받는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약속 받은 수익을 지급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로, 현재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액만 2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로챈 외제차는 대부분 대포차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끝에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또 다른 주범인 B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또 중고 외제차 판매업자 및 대포차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무면허에 상습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무면허에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3)씨를 입건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압수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0.178%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A씨는 1991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6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내 2-4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독이 될 경우,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차량 압수 조치는 제주에서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 소상공, 롯데관광개발 고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판매시설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 3300㎡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 피고인석에 앉은 제주하수처리장

도두동 주민 2명 도 상대 손해소송... “냄새 때문 피해”  
지법 첫 재판 “도는 악취와 관계없다는 자료 보완하라”

제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9일 제주시 도두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 등 주민 2명이 제주도 및 B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업체는 광역하수처리장인 원화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기업이다.

A씨 등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펜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던 펜션은 제주하수처리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제주도 측 변호인들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을 뿐 악취 관련은 자원화시설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이에 대해 최석문 부장판사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악취 관련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악취 문제가 오직 B중공업이 운영하는 자원화 시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맞는 자료를 보완하라”고 주문하며 다음 재판을 5월 10일 오후 2시10분으로 잡았다.

한편 제주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 시설’에서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각각 한 차례씩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가 측정됐다. 연구원 측은 제주도상수도본부의 의뢰를 받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 농협은행 직원 대출금 25억 횡령

속보=제주지역 NH농협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40대 직원이 부당대출(본보 3월 19일자 보도)을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농협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농협은행 지점에 근무 중인 대출담당 직원 A씨가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농협은행 서울본부 감사부에서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부당대출은 A씨가 제주도 소재 농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올해 초 서귀포시 소재 지점에 전보발령받은 후에도 계속돼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협은행 서울본부 감사부는 전산상시감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주지역에서의 금융사고 혐의를 발견하고, 이날 8-12일 A씨가 근무 중인 지점을 방문해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현재까지도 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A씨의 부당대출 횡수와 구체적인 방법,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협은행본부는 A씨를 대기 발령한 상태로, 조만간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사고 금액이 25억원인데,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濟州) 리모델링  
辛(新)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2021 히트브랜드 대상 본명이 특가할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마팅 혜택입니다.\*

**H2021 HIT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CGV  
와이덱스 보청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점  
한리세움관  
심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